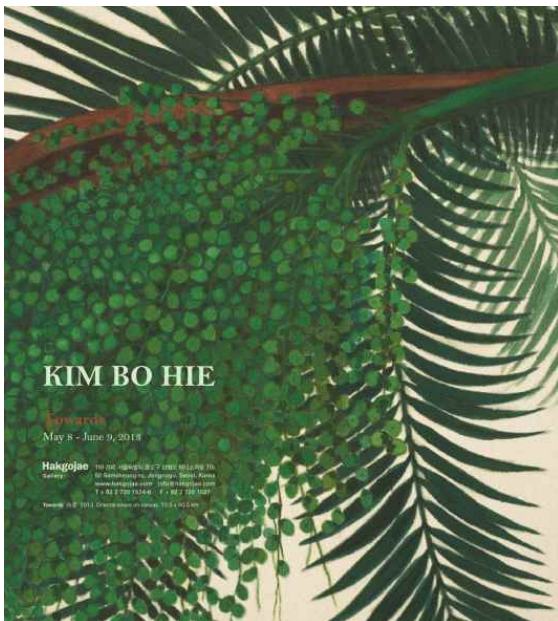


김보희 개인전

Towards

Kim Bo Hie Solo Exhibition



전시명 : 김보희 개인전 Towards, Kim Bo Hie

일 시 : 2013년 5월 8일(수) - 6월 9일(일) 33일간

장 소 : 학교재 갤러리 본관

문 의 : 02-720-1524~6

출품작 : 회화 19점

1. 전시 개요

학교재 갤러리는 오는 5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김보희(62) 개인전 “Towards(투워즈)”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은 작가가 바다와 식물을 소재로 삼아 지난 6년간 작업해 온 “Towards(투워즈)” 연작의 연장선에 있다. 전시에는 작가가 제주도에서 작업하며 이국적인 풍경을 담아낸 대, 소형 회화 작품 19점이 소개된다.

김보희의 Towards 연작은 우리가 무심코 봐왔던 익숙한 자연 풍경을 내면화한 결과물이다. 작가는 자연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대신 자연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이해하고 공감한다.

김보희는 특유의 절제된 표현으로 고요하고 짙은 생명력을 가진 명상의 장소를 만들어낸다. 이번 전시는 관객에게 복잡한 현실에서 벗어나 순수한 눈으로 자연을 바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전시 내용

동양의 시선으로 자연을 이해하다

김보희의 풍경은 자연을 왜곡 없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으나 재현의 미술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감성과 의식이 담겨있다. 작가는 평범한 자연에서 독특함을 발견해 시적, 예술적으로 자연을 옮겨 담는다. 이는 그녀가 바라보는 자연이 서양의 풍경화처럼 인간의 입장에서 자연을 심미의 대상으로 여기는 대신에 동양의 자연관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철학에서 자연은 교류의 대상이다. 김보희의 화폭에 담긴 자연의 모습은 사상과 자연이 '일체화' 된다는 점에 있어서 동양의 자연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그녀는 작품에 동양 전통 산수화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며 움직임이 자유로울 수 있는 시적 경지를 만들어 낸다. 작가에게 자연은 사상을 표현해 낼 수 있는 땅이고, 더 나아가 작가의 즐거움에서 비롯된 상상의 세계다. 그리고 이 세계는 작가가 자연과 대화하며 내적 자아성찰이 바탕이 된 정신세계가 담겨있다. 작가는 내면화를 통해 자연을 새로운 시각으로 담아낸다.

자연과 소통하다

작품에 묘사된 자연은 익숙하지만 낯설다. 무심코 바라보던 익숙한 초록빛 풍경은 김보희가 만들어낸 사실성과 추상성의 경계에서 독특한 색감과 구도가 만나면서 작품을 보는 이에게 생소하게 다가온다. 김보희의 자연은 대상의 배경이 배제된 채 극대화되고 평면화되어 관람객을 작가의 시선에 자리하게 한다.

작가에게 자연은 생명이 있는 교류의 대상이다. 흔히 김보희의 작품을 '명상적 풍경'이라고 일컫는데, 이는 작품이 작가 자신의 명상의 순간을 담고 있으며, 관객들 역시 그 명상의 순간에 다다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자연과 작가, 관람자를 더욱 더 가깝게 연결 시키는데, 관객들은 동시에 자연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작가가 자연과 교감하며 마주한 명상적 풍경은 생명에 대한 작가의 깨달음과 작가의 자연존중을 동시에 보여준다.

침묵속의 푸른 생명력

김보희는 이국적인 제주도의 자연에 매료되어 제주도에서 작업하기 시작했다. 제주도에서 작가는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이국적인 자연을 바라보고 관찰하며 자연의 위대함과 생명의 근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를 자연의 푸른색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사시사철 푸른 제주의 야자수와 바다는 캔버스 위에 원초적이고 입체적인 색감으로 담겼다. 이국적 풍경을 담은 작가의 이미지는 활기 넘치는 초록색을 더욱 더 강조하며, 깊이 있는 생명력을 전달한다. 잔잔한 바다 속에 소용돌이 치는 힘찬 물결과, 초록색의 일사귀 아래에서 자라나는 자연의 생명력은 작품 속의 고요하고 차분한 프레임 속에 강한 움직임과 힘찬 기운을 전해준다. 동시에 작가의 반복된 세필과 차분한 색채로 담아낸 은은함은 그녀의 자연을 사색적 풍경으로 만들어 낸다. 작가의 고요한 자연에서 느껴지는 깊이와 심오함은 침묵속의 푸른 생명력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다.

3. 전시 구성

Towards, 2013, Oriental colors on canvas,
280x180cm

작품에 묘사된 여인초는 나그네나무라고도 불리운다. 여인초는 열대 지방에 널리 퍼져 있는 높이가 10~25m까지 크는 식물이다. 제주도에서 마주한 여인초의 긴 줄기와 큰 잎이 가진 기하학적인 형상에 작가는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꼈다. 초록이 무성한 작가의 여인초는 신선한 수액을 빨아들이고 햇빛에 반응하며 위를 향해 자란다. 크고 작은 잎새는 가장 원초적인 생명형태의 전형이다. 작가는 나뭇잎, 줄기를 하나씩 대면한다. 여인초의 곧게 뻗은 줄기와 잎맥에서 작가는 푸른 나뭇잎의 잎맥을 관찰하며 끊임없이 오고가는 자연의 섭리를 느꼈다.

Towards, 2013, Oriental colors on canvas,
300x300cm

작가는 아주 오래전부터 바다를 소재로 작업해왔다. 이번에 소개되는 작품들 역시 담담하게 자연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지닌 심미적 탐구의 깊이를 담고 있다. 김보희는 소재를 과장 없이 충실하게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내면화하여 표현한다. 그녀의 바다는 인위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가운데 길게 뻗은 수평선을 중심으로 바다의 잔잔한 물결과 넓은 여백 등을 통해 그림 속 침묵을 형성하는 동시에 끝없는 고요속으로 관객을 이끈다.

4. 전시 서문

김보희의 시적 회화

황두 (독립큐레이터)

김보희의 그림이 매혹적인 이유는 그녀가 줄곧 그림 속에서 시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적인 그림은 작가가 자연(바다와 식물)에 대한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다룰 때 구현된다. 인물이 만들어지고 나서 형성한 고요한 배경은 꿈속에 나올 법한 시적 함의다. 그녀는 자연을 사람 몸의 연장으로 보며 개인의 사상을 표현하는 운반체로 여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작가 개인의 즐거움에서 비롯된 상상의 세계다. 전통적인 동양 산수화의 미학처럼 작가는 머물 수도 유영할 수도 있는 시적 경지를 만들어낸다.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이중적 은유를 이룬 것이다.

김보희의 작품은 다른 예술 작품처럼 명확하게 비판적 성격을 띠지는 않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일종의 '무성(소리 없는)' 저항의 모습을 나타낸다. 우리는 이미 기이하고 다채로운 '글로벌 영상 시대'에 진입했다. 이러한 시대에 김보희는 충만한 겉치레와 번잡스러움, 초조함과 뒤엉킴의 현실에서 벗어나 무궁한 자연 본연의 모습을 추구하며 고즈넉한 명상으로 끝없는 욕망을 배제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순화된 색조와 조용한 취향의 극치로 나아간다. 김보희의 작품이 자연을 직시의 방식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그녀가 자연을 생명체로 이해하며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기 때문이다. 화면 위에서 평면화로 처리된 것은 자연의 횡단면을 형성하고, 그림 속의 자연을 관람자와 더욱 가깝게 한다. 화면에 출현하는 인물이 없음에도 마치 보는 사람을 화면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화면 속에 주체를 감추었지만 화면 밖의 주체는 작가 자신이다. 작가/관람자와 화면 속의 자연 구성이 혼연일체가 되는 묘한 감정을 드러내며, 곧 화면 속의 자연과 대화를 통해 자기반성과 자아 순화의 정신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도와 배경을 고르는 방식은 자연 배경을 생명과 감정 및 영성이 있는 교류 대상으로 바꾼다. 서양 풍경화가 자연을 모방/재현하는 것을 중시했다면 동양의 산수화는 자연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더욱 중시했다. 전자가 자연을 심미의 대상으로 여겼다면, 후자는 자연을 교류의 대상으로 여겼다. 김보희는 작품에서 동양 전통 산수화의 미학을 충분히 드러냈다. 감정과 이성을 서로 교차시키며 시적인 감정과 예술적 경지를 서로 반영한다. 감정에 기댄 풍경은 감정과 조화를 이루며 독자적인 매력을 갖춘 시적 그림을 만들어냈다.

김보희 그림의 시적 정신이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 안내자다. 작가가 묘사하는 살아 있는 것들의 꿈 같은 만남은 삶에 대한 인류의 희망을 암시하는 심리적 표징이다. 이는 작가의 잠재의식 속 사유 궤적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김보희의 그림은 정서를 과장되게 묘사한다. 꿈과 환상 같은 자연이 작가의 주관에 의해 감정적인 상태와 특징으로 확장되어 이성의 수준까지 올라간다. 그녀의 그림은 마치 자신을 자연 속에 두고 응시하는 자세로 자연세계를 보는 달관과 신비, 그리고 안정감과 몽환적인 쾌감을 불러일으킨다.

김보희의 작품에서 관람자는 만물의 영성을 느낄 수 있다. 광활한 세상의 활발하고 소리 없는 생명을 조용히 경험한다. 어둠 속에서 흘러가는 저류처럼, 시공간 밖에서 더욱 아름답고 풍부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릴 것 같다. 그녀의 그림은 독특한 내면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시종 시적인 의미와 예술적 경지가 함께 연계되어 있다. 필치, 색채, 이미지로 구체적인 시적 언어를 구성해 간결하면서도 순수한 언어로 완벽한 표현에 도달한다. 자아와 자연은 생명의 '동일체'로 여겨지며 심원의 고상함과 탈속의 경지를 이룬다. 작가는 매우 적절하게 동서양 문화의 정신을 융화해 시적 경지와 문인의 이상을 담아낸다.

독일 철학자 칸트의 말처럼 자연과 예술, 그리고 도덕의 영역에 대응하는 것은 인류의 경험 속 진실인 세 가지 영역, 즉 자연에 대응하는 지성, 예술에 대응하는 판단력, 도덕에 대응하는 이성이다. 김보희의 그림은 자연 질서와 도덕 질서의 조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칸트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김보희가 시적 그림을 다루는 방식은 동양 미학적이다. 그 방식은 '자연'이 하나의 독립된 영역이 아니며 두 개의 서로 구별된 영역에서 독립, 곧 예술과 도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동양 미학의 전통에 따라 자연은 도덕과 예술이 이루어내는 최고 원칙이다. 도덕과 예술의 최고 경지는 자연과 같다. 이런 의미에서 김보희의 그림은 칸트 미학에 대한 시각 실증이다. 그의 그림은 개인 내면의 독자적인—작가 내면의 고요함과 초연함을 표현해낸 것이다. 그의 그림은 명상의 경지를 선사한다. 즉 예술가는 작품을 빌려 명상을 전달하고 관람자는 작품을 통해 명상을 얻는 것이다.

2013년 4월9일 화요일

5. 작가 약력

김보희

1974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1976 동 대학원 순수미술과 졸업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
서울·제주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전

2013 학교재 갤러리, 서울
2011 스페이스 캔, 베이징
2010 스페이스 캔, 서울
2008 갤러리 인, 서울
2006 학교재 갤러리, 서울
2004 카이스 갤러리, 서울
2002 갤러리 아트사이드, 서울
2001 현대예술관, 울산
갤러리 아트 사이드, 서울
2000 아트 스페이스 서울, 서울
1998 카이스 갤러리, 서울
1997 신세이도 화랑(新生堂), 도쿄
1995 월전미술관, 서울
1991 갤러리 63, 서울
1988 갤러리 현대, 서울
1986 동덕미술관, 서울
1980 출판문화회관, 서울

단체전 (2000~)

2012 풍경의 발견, 신세계 갤러리, 서울
2011 대한민국 작은 그림 미술제 - 작은 것이 아름답다, 갤러리 이즈, 서울
2010 월드아트페스티벌, 한국 프레스 센터, 서울
환경부 전시 - 아름다운 우리 산하,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여류작가 15인 정림리를 거닐다, 박수근 미술관, 양구
선화랑 개관 33주년 전, 선화랑, 서울
2009 현대미술의 Vision 2009, 세종문화회관, 서울
동양화 새천년 - 한국화의 현대적 변용 전시, 한가람 미술관, 서울
한지: 페이퍼로드,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이화아트센터, 서울; 프라우엔무제움, 독일
대한민국 작은 그림 미술제 - 작은 것이 아름답다, 갤러리 이즈, 서울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개관 기념전 - 현대미술의 응시, 부산대학교 미술관, 부산
월전 미술상 수상작가 초대전, 이천 시립 월전 미술관, 이천
2008 북한 나무심기 기념마련 남북 미술전, 한국미술관, 서울
자연과 신비성의 조화 - 어울림 전, 신미술관, 청주
한국현대회화 2008,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누군들 따뜻한 남쪽마을이 그림지 않으랴, 국립현대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 장흥
나우 랜드스케이프, 인사아트센터, 서울
문화유전자전, 송장미술관, 베이징
현대미술의 흐름-시정풍경展, 안양문화예술재단 알바로시자홀, 안양
어 뉴+ 김현주갤러리, 서울
명상 - 김보희·권부문 2인전, 가양갤러리, 부산

- 2007 평론가선정 현대작가 55인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한국화 1953~2007 展, 서울 시립미술관, 서울
트리 블루스, 갤러리 126-1, 서울
교수 60인 초대전,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전주
- 2006 한국화의 힘,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고요의 숲,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 분관, 서울
- 2005 신소장품 2004,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화 - 비전 2005,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지피룩 놀이미술관, 금호미술관, 서울
김보희 ·민병현전, 김현주갤러리, 서울
- 2004 한국의 정신, 아트 파크, 서울
동양화 새 천년 - 한국화, 2004년의 오늘, 예술의 전당, 서울
- 2003 중국 아트 인더스트리 포럼, 베이징
진경 - 그 새로운 제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3신춘기획초대전, 서울아트센터 공평갤러리, 서울
한국현대회화, 실파칼라 아카데미, 다카, 방글라데시
20C 현대미술의 지평전, 선화랑, 서울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02 블루, 갤러리 라메르, 서울
2002 아트 쉼튼, 쉼튼, 독일
기운생동전, 학교재 갤러리, 서울
- 2001 동양화 새 천년, 공평아트센터, 서울
동양화 새 천년, 새로운 의식과 감성을 찾아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대가와 신작작가들 2001, 에콜 드 보자르, 파리
21C를 열어가는 현대작가전, 갤러리 리즈, 서울
생명으로의 초대, 학교재, 서울
- 2000 원로중진 여류작가 초대전, 여주군민회관, 여주
21세기를 여는 지성과 감성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새 천년 대한민국의 희망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수상

- 1992 제2회 월전미술상
1983 제2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1982 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1981 제17회 한국 미술협회 은상
제30회 국전 특선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대한민국대사관, 베이징
쿠웨이트 대한민국대사관, 쿠웨이트
파라다이스 호텔
대한생명 63빌딩
산업은행